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5호

여름

2015. 6. 17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이종찬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 ~ 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봉오동전투 전승 제95주년 전적지 기념행사 성황리에 거행 승전 95년 만에 전투현장에서 처음 개최된 한·중 합동행사

여천 홍범도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지난 6월 5일 봉오동전투 현장인 중국 길림성 도문시 수남촌에서 기념사업회 방문단과 현지 중국 동포들이 참석하여 봉오동전투 전승 제95주년 전적지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래 전승일이 6월 7일이지만 일요일임을 고려하여 앞당겨 개최한 것이다.

기념행사는 문준진 사무총장 사회로 김유진 고문과 수남촌 주민대표가 헌화하고 봉오동전투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홍성덕 상임이사의 봉오동전투 연혁보고 후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이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전투 현장에서 선열들의 혼령을 모시고 독립운동정신을 기린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고 감회를 피력하고, “불의에 항거한 선열들의 정의로운 투쟁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을 사는 지혜로 승화시키자”고 강조하였다.

라철룡 수남촌장은 축사를 통하여 “서울에서 오신 홍범도기념사업회 회원들과 함께 전승일을 기념하게 되어 그 동안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있던 부끄러움을 다소나마 씻는 듯

하다”면서 걱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라 촌장은 또한 “함께하는 마음이 오늘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양하여 선열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기념행사가 끝난 후에는 라 촌장의 안내로 수남촌 댐에서 전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남봉오동으로 이동하여 김철수 전 연변대 교수로부터 상세한 전황 해설을 들었다.

이어서 수남촌으로 이동하여 마을회관에서 촌민들과 상견례를 하고, 이종찬 이사장은 회원들이 모금한 기부금을 전달한 후에 마을 주민들과 만찬을 같이 했다. 만찬이 끝난 뒤에는 마을 공원에서 우등불 놀이를 하면서 모닥불을 둘러싸고 춤과 노래로 한마당 고향을 벌였다.

이날 기념행사와 현장 답사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방문단 36명과 한겨레 신문에서 주관한 독립운동 전적지 테마여행팀 12명, 그리고 현지 동포들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연길에 도착하였고, 광둥지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안내로 두만강 강변공원과 도문시 중국과 조선 변경지대를 답사하고 수남촌에 도착하였다.

이종찬 이사장 기념사

봉오동 선열들의 화합정신을 계승,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자



오늘 우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기념일을 맞아, 실로 95년 만에 처음으로 전투현장을 방문하여 전승의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중국동포들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선열

들의 혼령을 모시고 독립운동 정신을 기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봉오동 전투 현장을 지키고 현창해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봉오골 반일전적지” 기념비는 1993년 도문시에서 건립하였고, 2013년에 도문시인민정부에서 새로 정비했습니다. 중국지방정부에서 항일무장투쟁 선열들의 전승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항일투쟁의 역사를 공유하여 양국 간의 우의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봉오골 반일전적지비” 앞에 서고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머리를 스쳐갑니다.

우선, 봉오동전투에서 싸운 독립군들은 각기 다른 혼성 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봉오동전투 10일 전에 홍범도부대와 최진동부대, 안무부대 등이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편성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휘체제를 가진 부대가 일사분란하게 하나로 결합하여 혁혁한 전과를 거양한 내재적인 요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군 선열들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투철한 책임감과 이러한 대의 앞에서 개인적인 공로나 명예를 앞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결속하여 일제를 격퇴하겠다는 강한 사명감과 겸양의 미덕으로 뭉쳤기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최진동을 대한북로독군부의 부장으로 우대했고, 안무는 그의 부관이 되었으며, 홍범도는 북로제1군사령부 부장으로 참여하여 양보의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후예들은 봉오동 선열들의 화합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세대가 미래를 개척하는 교훈으로

삼고,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범도 장군의 높은 인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 장군은 미천한 하층민 출신으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자발적으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의병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하여 수직적인 상하관계 자세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온화한 지휘통솔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홍 장군은 오랫동안의 포수생활을 통하여 맹수들을 사냥할 때의 기법을 강한 적군과 싸우는 유격전술로 발전시켜, 병력과 장비 면에서 월등한 일본 정규군을 격퇴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회원 여러분!

현재 동북아는 새로운 긴장과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평화를 지향하는 세기로 들어섰는데 동북아는 곳곳에서 전쟁준비를 확충해 나가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홍범도 정신이란 평화 시에는 언제나 평범한 시민으로서 말없는 가운데 충실한 농장의 일꾼이 되고, 시민들의 문화와 정서를 보듬는 원로로서 후진양성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침략이나 불온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제든지 분연히 쫓겨나서 평화를 수호하는 정신이 홍범도 장군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수호하려면 이런 정신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봉오동전투의 전승 현장을 돌아보면서 선열들의 불의에 항거한 정의로운 투쟁정신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을 사는 지혜로 승화시켜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승리를 이룩한 홍범도 장군, 최진동 장군을 비롯한 영웅적인 업적을 세운 선열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위업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종 찬

수남촌 라철룡 촌장 축하

봉오동 전승을 기리는 마음을 지속시켜 선열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야



봉오동전투 현장을 관리하는 수남촌 촌장으로서, 역사적인 봉오동전투 전승 95주년에 즈음하여 서울에서 찾아오신 내빈들과 도문시의 귀빈들을 모시고 기념비 앞에 현화하고 선열들의 넋을 기리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립전쟁의 3대첩 중의 하나인 봉오동전투가 역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도문시에서 기념비를 건립하고 일부 관광객들이 다녀갔지만,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보잘 것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서울의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동안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있던 부끄러움이 다소나마 씻어진 듯합니다. 함께 기념하는 마음을 오늘에만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져 선열들 앞에 보다 당당히 나설 수 있는 후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남촌은 봉오동 전승의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성을 기반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순수한 조선족마을로 조성하려고 하오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답사여행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인물연구회 / 왼쪽에서 부터박경식 상임이사, 박정원 회원, 김진검 집행위원장, 이종찬 이사장, 오장숙 고문, 최길웅 총장〉

이종찬 기념사업회 이사장, 연변인물연구회 임원들과 만찬

이종찬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6월 6일 오후, 연변인물연구회 오장숙 고문 초청 만찬에 참석하여 연변의 우리 동포들이 항일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함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오장숙 고문은 연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 초대 주임을 역임했으며, 연변자치주 부주석을 역임한 김진검 집행위원장, 최길웅 사무총장과 박경식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오전에는 연변 박물관을 관람하고, 허덕환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과 오찬을 함께 하고 8일부터는 신흥무관학교 일정에 참여했다.



〈청산리 항일 대첩기념비〉

기념사업회 회원들,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기념사업회의 전적지 방문 회원들은 6일에는 청산리대첩 전적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오전에는 용정 삼합의 망강각(望江閣)에서 손에 잡힐 듯한 북한의 회령시를 조망하였고 명동촌으로 이동하여 민족시인 윤동주 생가와 기념관을 관람하였다. 이어서 용정중학교 역사교사의 해설로 대성중학교기념관과 이상설선생기념관을 돌아보았다. 오후에는 화룡으로 이동하여 청산리 대첩비에 참배하고 나철, 서일, 김교헌 등 대중교 3인묘를 답사했다.

7일에는 이도백하에서 출발하여 백두산을 등정하고 장백폭포를 관광했으나, 천문봉이 열리지 않아 아쉽게도 천지를 보지 못하고 하산하였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봉오동 전적지 방문단 이모저모(1)



〈연길 공항〉



〈도문시 두만강 강변공원〉



〈수남촌 마을회관 상견례〉



〈봉오동전투 전적지비〉



〈봉오동 댐에서 해설하는 라철룡 촌장〉



〈남봉오동 전황을 설명하는 김철수 교수〉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봉오동 전적지 방문단 이모저모(2)



〈봉오동 광장 벽화 제막식 기념〉



〈우등불 행사에서 북춤 추는 동포들〉



〈우등불 행사에서 동포들과 함께 춤추는 방문단원〉



〈대성중학교 기념관 앞에서〉



〈장백산 입구 대기 광장〉



〈안개 낀 장백폭포〉

차중 특별강좌: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독립운동사상 최고의 업적



봉오동전투는 홍범도장군의 주도로 구성된 대한북로독군부가 일본군 19사단 월강대대를 화룡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하여 격퇴시킨 독립전쟁사상 일본정규군과 싸운 최초의 대승을 거둔 전투이다. 대한북로독군부는 1920년 5월 28일 대한독립군과 국민회의 국민군 및 군무도독부(軍務都督府)가 연합하여 봉오동에 병력이 집결되면서 강력한 국내 진입작전을 수행했다.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 소부대가 국내 진입작전으로 삼둔자를 출발하여 두만강을 건너 일제 헌병순찰소대를 격파하고 귀환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에 일본군 제19사단은 야스카와[安川二郎]소좌의 인솔 하에 '월강(越江) 추격대대'를 편성하여 두만강을 건너 봉오동 입구에 접근하자, 홍범도장군은 봉오골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요지에 병력을 매복시켰다. 일본군이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진입하자,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추격

대대는 3시간 동안 악전고투하다가 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100여 명을 사살하고 30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 전투로 일본군은 독립군의 능력과 전력을 새롭게 평가하고, 철저한 토벌계획에 따라 청산리 전투로 이어진다.

청산리 독립전쟁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독립군 부대가 1920년 10월 21일부터 1주일동안 화룡현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 이즈마부대를 상대로 대소 10여 차례 격전을 치른 끝에 적을 폐퇴시킨 일련의 전투로, 독립운동사상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산리 전투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좌진 부대가 중심이 된 전투로 알려졌으나 당시의 전황과 일제의 자료를 연구한 결과, 홍범도 부대의 활약이 더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양 부대 간에는 서로 경쟁 상대였으나 전투 시에는 서로 돕는 상호보완 관계였다.

청산리 전투에서는 적 사살 500 내지 600여명, 독립군은 100 내지 150여명이 희생되었다.

차중 특별강좌: 김유진(기념사업회 고문, "피어린 장백산" 저자)

홍범도 장군은 무장독립운동사상 독보적인 수훈자



홍범도장군은 무장독립투쟁사상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최고의 수훈자이다. 을미의병에서부터 시작하여 1907년에는 후지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하여 함경도 일대에서 “날으는 홍범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1909년 연해주로 이동하여 의병을 독립군으로 발전시켜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 할 때까지 탁월한 유격전술로 백전백승하였다.

또한 홍 장군의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후 중단된 군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공식적으로 군대는 해산되었으

나, 의병투쟁을 전개했고, 다시 독립군으로 발전하여 독립전쟁을 주도했으며, 1940년 광복군으로 이어짐으로써 중단된 군의 명맥을 계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홍범도는 투철한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가진 분이다. 하층민 출신으로 국가의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15세 때부터 평양의 진위대에 입대하여 군인의 길을 걸었고, 지담스님으로부터 애국적인 역사를 배웠으며, 대중교의 단군사상으로 무장된 투철한 민족 지도자였다. 홍범도는 또한 유격전술을 개발하여 강한 적을 격파했고, 부하들에게도 동지애와 온화한 지휘통솔로 존경받았다.

차중 특별강좌: 고종애(경북고등학교 교사)

별을 그리며, 별을 노래하다 민족의 별이 된 시인 윤동주



윤동주는 용정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과 감옥소에서 보낸 3년을 제외하면 조국에서 보낸 시간은 연희전문학교 시절인 고작 4년이다. 그는 수많은 별을 미처 다 노래하기도 전에 후쿠오카 감옥소에서 28세라는 짧은 생애를 마친다.

연희전문 졸업 시집을 내려했으나 당시 금기였던 우리말로 시집을 내면 당연히 일제의 검열에 걸릴 것이라는 스승 이양하 교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글로 베껴 만든 시집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이다. 그의 천재성

을 알아본 후배 정병욱의 해안에 의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윤동주는 살기 위해 대부분 절필을 하거나 친일로 전향하던 그 살벌한 시대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별을 노래했고, 일본 유학용 도항증서를 얻기 위한 창씨개명에 대한 참회를 냉혹하리 만큼 자기반성을 하였다.

우리말을 쓰고 노래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후쿠오카 감옥에서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로 생체실험의 희생물이 되었다. 윤동주는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굳고 강인한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라.

차중 특별 강좌:곽승지(연변과기대 교수)

조선족 동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조선족 사회에서 남편을 부를 때 “나그네”라고 한다. 나그네는 정주(定住)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정주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이 서린 의미인가.

조선족 동포의 선조들은 1860년대에는 생존을 위하여 두만강을 건너 이주했고, 1905년부터는 독립운동을 위하여 망명했으며, 1930년대에는 일제의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국경을 넘어야 했다.

해방 이전 만주에는 216만 여명으로 추계되는 동포들이 거주하다가 해방 이후 80여 만명이 귀국했고, 중국 해방전쟁 기간 동안 30여 만명이 돌아와, 도합 110여 만명이 귀국하게 된다.

만주에 잔류한 동포들은 북한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잔류 배경을 보면, 중국 공산당이 만주지역을 해방시켜, 1946년부터 주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생활이 안정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이 싸우는 동안 공산당 편에 참전하여 열세했던 공산당이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다. 공산당이 승리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은 북한의 지원이라는 변수가 있다. 6·25 때는 중공이 보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전했지만, 명분상으로는 제국주의 타도와 남한을 구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족 동포들은 1960년대에 들어와 다시 시련을 겪게 된다. 소위 정풍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들어와서는 중공만이 조국이라는 사상개조운동이 더욱 강화되어 이 시기에 2,600여 동포가 희생되었고, 6·25 때 전사한 6,900여명, 중국 해방전쟁 기간에 희생한 4,000여 명까지 합하면 참전 동포의 10%에 해당하는 14,000여 명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 당한 것이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뿌리를 내리면서 생존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 조선족 동포들은 비록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강한 자존심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 비록 부러질 수는 있지만 휘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기질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족 동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용해야 될 것이다.

1992년 수교 이후에는 북한이 모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체 동포의 1/3인 70여만 동포들이 한국으로 귀국했다. 한국에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60만 명이다. 서울의 가리봉동과 대림동에는 조선족들의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조선족 사회의 실태를 보면 중국 거주 동포 중 90% 이상이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고, 76%는 진(鎭)급 이하의 행정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990년 조선족 집단 거주 마을이 910개에서 2005년에는 2/3로 줄었고, 조선족 학교는 대부분 폐교되고 시·현급에 1개 정도 남아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의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나그네”의 본성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조선족 사회의 내면을 보면 노인들은 주로 한족(漢族) 경노원에서 생활하고, 청소년들은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하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체성의 위기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의 터전인 동북3성과 조선족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조선족 동포들이 각성하여 민족의식을 회복해야 하고, 또한 조선족 사회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며, 함께 미래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미래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육성하고 주민들을 계몽하여야 한다. 수남촌의 사례에서 처럼 지도자를 중심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열정을 갖도록 관심을 보여야 한다.

농촌마을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탈한 동포들이 귀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이 명예롭게 귀향할 수 있도록 투자와 기술지원을 통하여 귀환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조선족 학교 살리기 운동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살리기 운동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현실적인 과제로서는 조선족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하며, 이는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차원에서 1사1촌운동을 벌여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일교포까지도 포함한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정착의 핵심적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 황 원 섭 이사

봉오동전투 전승 95주년 기념행사 참가자 소감

○강대구(중동고 교사)



역사의 현장에 홍범도기념사업회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3년 전에 답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세한 해설을 듣고 구석구석 답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수남촌 마을광장 무대 제막식에 참여하여 민족의식을 새롭게 느꼈다. 이번 답사 결과와 광송지 교수의 조선족문제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충분히 반영하겠다.

○김진중(월간 '순국' 편집국장)



그 동안 다른 답사여행에 참가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 행사처럼 알차고 뜻 깊은 여정은 처음이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동포들과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느꼈다고 생각한다. 월간 '순국'지 7월호에 특집으로 봉오동전투 전승 제95주년 기념행사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박명구(일산 백송고 교사)



95년만에 처음 개최되는 한중 합동기념식에 참석하여 영광스럽다. 수남촌에서 동포들의 역동적인 삶의 현장과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려는 열정에 감명을 받았다. 기념행사와 전적지 답사를 통하여 교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홍이표(애지모 대표)



"애지모"는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동지들의 모임이다. 전적지 답사도 교훈적이었지만 광송지 교수의 강의를 듣고 한민족의 이주사와 현실을 이해하게 되어 평생 동안 기억에 남겠다. 유통조직인 하이리빙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우당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홍재구(제주공룡랜드 대표)



남양 홍씨 일가로서 뒤 늦게 참여하게 되어 송구스러움과 부끄러움마저 들었다. 항일독립 투쟁의 민족적 영웅 홍범도장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남양 홍씨 종친회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계자 여러분의 빈틈 없는 계획과 진행에 감사드린다.

○이미자(종로구 구의원)



젊은 시절 15년 동안 교사생활을 하면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 유적지 답사를 소망했었는데, 봉오동전투 전승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정말 행복하다. 홍범도장군의 훌륭한 면모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고, 광송지 교수를 통해 조선족 동포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 수남촌에서 동포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여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임면재(우당장학회 회원)



홍범도기념사업회 집행부의 치밀한 기획능력과 빈틈 없이 진행하는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봉오동 전승이후 95년만에 중국 동포들과 함께 하는 첫 행사에 참석하여 자랑스럽다. 그러나 무장독립투쟁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승전기념 행사를 지금까지 외면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선열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든다.

이번 행사에서 수남촌을 방문하여 동포들과 함께 어울려 뜨거운 동포애를 느꼈고, 조선족에 관한 특강을 통하여 우리 동포들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느낌이다.

○문준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번 행사의 준비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세운 박사, 광송지 교수, 라철룡 총장, 박경식 부회장 등 협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무사히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다행스럽다. 수남촌에서 동포들과 어울려져 함께 춤추고 노래하던 기억은 평생의 멋진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 앞으로 봉오동·청산리 전적지 답사와 수남촌 방문행사를 정례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